[48] 4월

초 1일(신유) 맑음. 옥문 밖으로 나왔다. 남문 밖 윤간(尹侃)의 종의 집에 이르러 봉( ), 분(芬), 울(蔚) 사행(士行), 원경(遠卿)들과 한 방에 같이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하였다. 지사(知事) 윤자신(尹自新)이 와서 위로하고, 비변랑(備邊郎) 이순지(李純智)가 보러 왔었다. 울적한 마음을 한층 이기기 어려웠다. 지사가 돌아갔다가 저녁 식사후 술을 가지고 다시 왔다. 기 헌(耆獻)도 왔다. 정으로 권하며 위로하기로 사양할 수 없이 억지로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 영공(令公) 이순신(李純信)이 술병을 차고 와서 같이 취하며 간담하였다. 영의정(＊유성룡)이 종을 보냈고, 판부사(判府使) 정탁(鄭琢), 판서 심희수(沈喜壽), 찬성(贊成) 김명원(金命元), 참판(參判) 이정형(李廷馨), 대사헌(大司憲) 노직(盧稷), 동지(同知) 최원(崔遠), 동지 곽영(郭嶸)들이 사람을 보내어 문안했다. 취하여 땀이 몸에 배었다.

초 2일(임술) 비. 종일 비가 왔다. 여러 조카들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방업(方業)이 음식을 풍성히 차려 가지고 왔다. 필공(筆工)을 불러 붓을 메게 하였다. 어두울 무렵에 성으로 돌아가 정승과 이야기 하다가 닭이 울어서야 헤어져 나왔다.

초 3일(계해) 맑음. 일찍 남으로 길을 떠났다. 금오랑(金吾郎 ＊사금부도의 별칭) 이사빈(李士貧), 서리(書吏) 이수영(李壽永), 나장(羅將) 한언향(韓彦香)은 먼저 수원부에 도착하였다. 나는 이덕원(李德院 ＊수원군 과천면)에서 말을 먹이면서 조용히 누워 쉬다가 저물어서 수원에 들어가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홍이상-洪履祥) 수하에서 심부름하는, 이름도 모르는 군사의 집에서 잤다. 신복룡(愼伏龍)이 우연히 왔다가 내 행색을 보고 술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위로하였다. 부사 유영건(柳永健)이 나와 보았다.

초 4일(갑자) 맑음. 일찍 길을 떠나 독성(禿城 ＊수원군 호양면 산경리) 아래 이르니 판관 조발(趙撥)이 술을 갖추어 막을 치고 기다리었다. 취하도록 마시고 길을 떠나 바로 진위 구로(振威 舊路 ＊경기도 진위군 북면 봉남리)를 거쳐 냇가에서 말을 쉬이고 오산(五山) 황천상(黃天祥)의 집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황(黃)은 내짐이 무겁다고 말을 내어 실어 보내니 고맙기 그지 없었다. 수탄(水灘)을 거쳐 평택 고을 이 내은손(李內隱孫)의 집에 이르니, 주인의 대접이 매우 은근하였다. 자는 방이 아주 좁아 불까지 때서 땀을 흘렸다.

초 5일(을축) 맑음. 해가 뜨자 길을 떠나 바로 선영(先塋 ＊충청남도 아산군 염치면에 있음)에 이르렀다. 수목이 두번이나 산화를 겪고 타 죽어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산소에 나아가 울며 절하고 한참동안 일어서지 못하였다. 저녁때가 지나서 외가로 내려가 사당에 절하고 그 길로 조카 뇌( )의 집에 이르러 선대 사당에 울면서 절하였다. 들으니, 남양(南陽)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저물어 집에 이르러 장인 장모님의 신위 앞에 절하고 바로 작은 형님과 여필(汝弼)의 부인되는 제수의 사당에도 다녀와서 잠자리에 들었다. 심희가 좋지 않았다.

초 6일(병인) 맑음. 멀고 가까운 친척과 아는 이들이 모두 모여 와서 오래 못 본 정들을 풀고 갔다.

초 7일(정묘) 맑음. 금부 도사가 아산 고을로부터 오므로 나는 가서 극진히 접대하였다. 홍찰방(洪察訪), 이별좌(李別坐), 윤효원(尹孝元)이 보러 왔다. 금부 도사는 흥백(興伯)의 집에서 잤다.

초 8일(무진) 맑음. 아침에 자리를 베풀고 남양 아저씨를 곡하고 복을 입었다. 늦게 흥백(興伯)의 집에 이르러 이야기 하였다. 강계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므로 그 집에 가서 조상하고, 오는 길에 홍석견(洪石堅)의 집에 들렀다. 늦게 흥백(興伯)의 집에 가서 금부 도사를 대접하였다.

초 9일(기사) 맑음. 동네 안에서 각기 술병을 들고 와서 멀리 가는 길을 위로하므로 정리상 거절하지 못하고 몹시 취하여 헤어졌다. 홍군우(洪君遇)는 노래 부르고, 이 별좌(李別坐)도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노래를 들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금부 도사는 술을 잘 마시는데, 실수하지는 않았다.

초10일(경오) 맑음. 아침 식후에 흥백(興伯)의 집에 이르러 금부 도사와 함께 이야기 했다. 늦게 홍찰방(洪察訪), 이별좌(李別坐) 형제, 윤효원(尹孝元) 형제가 보러 왔었다. 이언길(李彦吉), 허제(許霽)가 술병을 차고 왔다.

11일(신미) 맑음. 새벽에 꿈이 몹시 산란하여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덕(德)이를 불러 대강 이야기하고, 또 아들 울(蔚)에게 이야기 하였다. 마음이 매우 언짢아서 취한 듯 미친듯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이 무슨 징조일까. 병드신 어머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종을 보내서 어머님의 안후를 알아 오게 하였다. 금부 도사가 온양(溫陽)으로 돌아갔다.

12일(임신) 맑음. 종 태문(太文)이 안흥량(安興梁 *충남 서산군 근흥면)으로 부터 들어와 편지를 전하는데 어머님의 근력은 아주 쇠약하시나, 초 9일 위 아래 여러 사람이 무사히 안흥(安興)에 닿았다고 한다. 법성포(法聖浦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이르러 자고 있을때 닻이 끌려 떠내려 가서 배에 머무른 지 엿새 만에 서로 나뉘었다가 무사히 만났다고 한다. 아들 울을 먼저 바닷가로 보냈다.

13일(계유) 맑음. 일찍 아침을 먹고 어머님을 마중하려고 바닷가로 가는 길에 홍찰방(洪察訪) 집에 잠깐 들러 이야기하는 동안 울이 종 애수(愛壽)를 들여보내어 「아직 배오는 소식이 없다」고 했다. 또 들으니, 황천상(黃天祥)이 술병을 들고 흥백(興伯)의 집에 왔다. 하므로 홍(洪)과 작별하고, 흥백의 집에 이르렀더니, 조금 있다가 종 순화(順花)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한다. 뛰쳐 나가 뛰며 둥그니 하늘의 해 조차 캄캄했다. 곧 해암(奚岩 *아산군 인주면 해암리)으로 달려가니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야 이루 다 어찌 적으랴.

(뒷날 대강 적었다.)

14일(갑술) 맑음. 홍찰방(洪察訪), 이별좌(李別坐)들이 들어와 곡하고 관을 짰는데, 관은 본영에서 준비해 가지고 온 것으로 조금도 흠할데가 없다고 한다.

15일(을해) 맑음. 늦게 입관했다. 친숙한 벗 오종수(吳從壽)가 모든 것을 정성껏 해 주니,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잊기 어렵다. 관에 대해서는 다른 유감이 없으니 이것만은 다행이다. 천안 원이 들어와서 행상을 준비하고, 전경복(全慶福)이 연일 진심으로 상복 만드는 일들을 돌봐 주니 슬프고 감사한 말을 어찌 다 하랴.

16일(병자) 궂은비. 배를 끌어 중방포(中方浦)에 옮겨 대어, 영구를 상여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아픔이야 어떻게 다 말하랴. 집에 이르러 빈소를 차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나는 맥이 다 빠진데다가 남쪽 길이 또한 급박하니, 부르짖으며 울었다. 다만 어서 죽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천안(天安)이 돌아갔다.

17일(정축) 맑음. 금부 도사의 서기 이수영(李壽永)이 공주로부터 와서 어서 가자고 재촉하였다.

18일(무인) 비, 종일 비가 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머리를 내 놓지 못하고, 그저 빈소 앞에서 곡만 하다가 종 금수(今守)의 집으로 물러 나왔다. 늦게 계원들이 나 있는 곳으로 모여 와서 곗일을 의논하고 헤어졌다.

19일(기묘) 맑음.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님 영 앞에 하직을 고하고 울며 부르짖었다. 어찌 하랴. 어찌 하랴. 천지간에 나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을 것이랴. 어서 죽는것 같지 못하구나. 뇌( )의 집에 이르러 선조의 사당에 하직을 아뢰고 그 길로 금곡(今谷 *충청남도 연기군 광덕면 대덕리) 강선전(姜宣傳)의 집앞에 이르러 강정(姜晶), 강영수(姜永壽)를 만나 말에서 내려 곡하고, 다시 그길로 보산원(寶山院 *광덕면 보산리)에 이르니, 천안 군수가 먼저 와 말에서 내려 냇가에서 쉬고 있으며 임천(林川) 군수 한 술(韓述)이 중시(重試)보러 서울 가는 길에 앞길을 지나다가 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서 조문하고 갔다. 회( ), 면( ), 울, 해분, 완과 주부(主簿) 변존서 들이 함께 천안까지 따라 왔다. 원인남(元仁男)도 보러 왔기에 작별한 뒤 말에 올랐다. 일신역(日新驛 *공주군 장기면 신관리)에 이르러 잤다. 저녁에 비가 뿌렸다.

20일(경진) 맑음. 공주(公州) 정천동(定天洞)에서 아침을 먹고 저녁에 이산(尼山 *공주군 노성면 읍내리)에 닿으니 이 고을 원이 극진히 접대하는 것이었다. 군청 동헌에서 잤다. 김덕장이 우연히 와서 서로 만났고, 도사(都事)도 보러 왔었다.

21일(신사) 맑음. 일찍 떠나 은원(恩院 *논산군 은진군 연서리)에 이르니 김익(金翼)이 우연히 왔다고 한다. 임달영(任達英)이 곡식을 사러 배로 은진포(恩津浦)에 왔다고 하는데, 하는 꼴이 몹시 괴상했다. 저녁에 여산(礪山 *전북 익산군 여산면 여산리) 관노의 집에서 잤다. 한밤중에 홀로 앉았으니 슬픈 생각을 견딜 길이 없었다.

22일(임오) 맑음. 낮에는 삼례(參禮 *익산군 삼례면 삼례리) 역리(驛吏)의 집에 이르고, 저녁에 전주 남문 밖 이의신(李義臣)의 집에서 잤다. 판관(判官) 박근(朴勤)이 보러 왔었고, 부윤(府尹)도 후히 접대했다. 판관이, 기름 먹인 두꺼운 종이와 생강들을 보내 주었다.

23일(계미) 맑음. 일찍 떠나 오원역(烏原驛 *임실군 오천면 선천리)에 말도 쉬이고 아침도 먹었다. 조금 있다가 도사(都事)가 왔다. 저물어 임실현(任實현)에 이르렀다. 원이 예사로이 대접했다. 원은 홍순각(洪純慤)이다.

24일(갑신) 맑음. 일찍 떠나 남원에 이르렀다. 읍에서 15리쯤에서 정철(丁哲)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남원부 5리 안에까지 이르니 작별하고 10리 바깥 이희경(李喜慶)의 종의 집에 이르렀다. 슬픈 회포를 어찌 말하랴.

25일(을유) 비가 올 것 같았다. 아침 식후에 길을 떠나 운봉(雲峰 *남원군 음봉면) 박용(朴龍)의 집에 들어가니 비가 크게 퍼부어 머리를 내 놓을 수 없었다. 거기서 들으니, 원수(元帥 *권윤)는 벌써 순천하로 갔다고 하므로 곧 사람을 금부도사에게 보내어 머무르게 했다. 이 고을의 원(*남간-南侃)은 병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

26일(병술) 흐리고 개지 아니하였다. 일찍 식사하고 길을 떠나 구례현(求禮현)에 이르니, 금부 도사가 먼저 와 있었다. 손인필(孫仁弼)의 집에 사처를 잡았는데, 이 고을 현감(*李元春)이 급히 나와 보고 극진히 대접하고, 금부 도사도 보러 왔었다. 금부 도사에게 술을 권하라고 원에게 청하였더니, 원이 아주 대접을 잘 하였다고 한다. 밤에 앉았으니 비통함을 어찌 다 말하랴.

27일(정해) 맑음. 일찍 떠나 송치(松峙 *순천군 서면) 밑에 이르니 구례 원이 점심을 지어 보냈다. 순천 송원(松院 *순천군 서면 송원리)에 이르자 이득종(李得宗), 정선(鄭宣)들이 와서 문안하였다. 저녁에 정원명(鄭元冥)의 집에 이르니, 원수(元帥)가 내가 온 것을 알고, 군관 권승경(權承慶)을 보내어 조상하며, 또 안부도 묻는데, 위문하는 말이 자못 간곡했다. 저녁에 이 고을 원이 보러 왔었다. 정사준(鄭思竣)도 보러 와서 원공(元公 *권 均)의 망령되고 패악한 짓을 많이 말하였다.

28일(무자) 맑음. 아침에 원수(元帥)가 또 군관 승경(承慶)을 보내어 문안하며 전하되, 「상중에 몸이 피곤할 터이니 회복되는데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이제 들으니 친근한 군관이 통제영에 있다고 하므로 편지와 공문을 보내고 나오게 하는 바이니 데리고 가서 간호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편지와 공문을 만들어 왔다. 부사(*순천부사)의 손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29일(기축) 맑음. 신사과(愼司果)와 응원(應元)이 보러 왔었다. 병사(兵使 *이복남)도 우수에게서 지시를 들으려고 고을로 들어왔다고 한다. 신사과(愼司果)와 이야기하였다.

30일(경인) 아침엔 흐리더니 저물어선 비가 왔다. 아침후 신사과와 이야기하였다. 그는 병사에게 붙들려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병사 이복남 식전에 보러 와서 원공의 일을 많이 말하였다. 감사(*전라감사 박흥노-朴弘老)도 원수에게 왔다가 군관을 보내서 안부를 물었다.

[49] 5월

초 1일(신묘) 비, 비. 신사과(愼司果) 머물며 이야기하였다. 순찰사와 병사는 원수가 머무른 정사준(鄭思竣)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며 즐겁게 논다고 하였다.

초 2일(임진) 늦게 갬. 원수(*권윤)는 보성으로 가고 병사(*이복남)는 본영으로 가고, 순찰사(*박흥노)는 담양 가는 길에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부사(*우치적)도 보러 왔었다. 진흥국(陳興國)이 좌수영으로부터 와서 눈물을 흘리며 원(*균)의 일을 이야기 하였다. 이형복(李亨復)과 신홍수(申弘壽)도 왔었다. 남원 종 끝돌이가 아산(牙山)에서 와서 어머님 영연(靈筵)이 편안하시다고 하고, 또 유헌(有憲)이 식구들을 데리고 무사히 금곡(金谷 *연기군 광덕면 대덕리)에 도착하였다고 했다. 홀로 빈 동헌에 앉아 슬픈 정희를 견딜 길 없었다.

초 3일(계사) 맑음. 신사과(愼司果), 응원(應元), 진흥국(陳興國)들이 돌아갔다. 이기남(李寄男)이 보러 왔었다. 아침에 울(蔚 *둘째아들)의 이름을 열(悅)로 고쳤다. 「悅」은 음이 「悅」(열)이다. 싹이 처음 튼다는 데나, 초목이 기운차게 자란다는 쓰는 글자라 글자 뜻이 매우 좋다. 늦게 강 소작지(姜所作只)가 와서 곡했다. 오후 4시쯤에 비가 뿌렸다. 저녁에 원이 보러 왔었다.

초 4일(갑오) 비. 이날은 어머님 생신이라 슬프고 애통함을 참을 길 없었다. 닭이 울자 일어나 앉아 눈물만 흘렸다. 오후에 비가 몹시 퍼부었다. 정사준(鄭思竣)이 와서 종일 돌아가지 않았다. 이수원(李壽元)도 왔었다.

초 5일(을미) 맑음. 새벽 꿈이 매우 어지러웠다. 아침에 부사가 보러 왔었다. 늦게 충청 우

후 원유남(元裕男)이 한산(閑山)에서 와서 원공(＊균)의 못된 짓을 많이 전하고, 또 진중의 장졸들이 모두 다 배반하므로 앞으로 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리라고 하였다. 이날은 단오절인데, 천리 밖에 멀리 종군하여 어머님 영연을 멀리 떠나 장례도 못 모시니 무슨 죄로 이런 갚음을 당하는고. 나와 같은 사정은 고금을 통하여 짝이 없을 것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다. 다만 때를 못 만난 것을 한탄할 따름이다.

초 6일(병신) 맑음. 꿈에 돌아가신 두분 형님을 만났는데, 서로 붙들고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사를 지내기 전에 천리 밖으로 떠나와 군사에 종사하고 있으니, 대체 모든 일을 누가 주장해 한단 말이냐, 통곡한들 어찌 하리」하셨다. 이것은 두 형님의 혼령이 천리 밖까지 따라 오셔서 근심하고 애달아 함을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니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 또 남원의 추수 감독 일을 염려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연일 꿈자리가 어지러운 것도 아마 형님들의 혼령이 그윽히 걱정하여 주는 탓이라 슬픔이 한결 더 하다. 아침 저녁으로 그립고 설운 마음에 눈물이 엉기어 피가 되건마는 아득한 저 하늘은 어째서 내 사정을 살펴주지 못하는고. 왜 어서 죽지 않은지, 늦게 능성(綾城) 현감 이계명(李繼命)이 역시 상제몸으로 기용된 사람인데 보러왔다가 돌아갔다. 흥양(興陽)이 있는 종 우 노음금(禹老音金) 박수매(朴守每), 조택(趙澤)과 순화(順花)의 처가 와서 인사했다. 이기윤(李寄胤)과 몽생(夢生)이 왔다. 송정립(宋廷立), 송득윤(宋得運)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저녁에 정원명(鄭元冥)이 한산(閑山)에서 돌아와서 흉한 자(＊원균)이 못된 짓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또 들으나, 부찰사(副察使 ＊한효순)가 좌수영으로부터 나와 병을 조리한다고 한다. 우수사(＊이억기)가 편지를 보내어 조상했다.

초 7일(정유) 맑음. 정혜사(定惠寺) 중 덕수(德修)가 짚신 한 켤레를 바치므로 거절하고 받지 않았으나 두번 세번 간절히 말하므로 값을 주어 보내고, 짚신은 원명(元冥)에게 주었다. 늦게 송대기(宋大器) 유몽길(柳夢吉)이 보러 왔었다. 서산 군수 안 괄(安适)이 한산(閑山)에서 와서 음흉한 자(＊원균)의 일을 많이 말했다. 저녁에 이기남(李奇男)이 왔다. 이원룡(李元龍)이 수영에서 돌아왔다. 안괄이 구례에 갔을 때 조사겸(趙士謙)의 수절녀를 사통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놀랄 일이다.

초 8일(무술) 맑음. 아침에 승장 수인(守仁)이 밥지을 중 두우(杜宇)를 데리고 왔다. 종 한경(漢京)은 일이 있어서 보성으로 보냈다. 흥양 종 세충(世忠)이 녹도(鹿島)에서 망아지를 끌고 왔다. 활장이 이지(李智)가 돌아갔다. 이날 새벽 끝에 사나운 범을 때려 잡아서 껍질을 벗겨 휘둘렀는데, 이 무슨 징조인지 알 수 없다. 조종(趙琮)이 이름을 연(堧)으로 고치고 보러 왔었다. 조덕수(趙德秀)도 왔었다. 낮에 망아지에 안장을 얹어 정상명(鄭詳溟)이 타고 갔다. 음흉한 원(元 ＊균-均)이 편지를 보내어 조상하니 이것은 원수(元帥)의 명령이었다. 이경신(李敬信)이 한산(閑山)에서 와서 음흉한 원(元)가의 말을 많이 하였는데, 원가가 데리고 온 서리(書吏)를 곡식 사라는 구실로 육지로 보내 놓고 그 처를 사통하려고 하니 그 계집이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악을 쓴 일이 있다고 한다. 원(元)이 온갖 계략으로 나를 모함하려 덤비니 이 역시 운수다. 뇌물로 실어 보내는 짐이 서울 길에 잇 닿았으며 그렇게 해서 날이 갈수록 심히 나를 헐뜯으니 그저 때를 못만난 것만 한탄할 따름이다.

초 9일(기해) 흐림. 아침에 이형립(李亨立)이 보러 왔다가 곧 돌아갔다. 이원수(李元壽)이 광양에서 돌아왔다. 순천 사는 과거에 급제한 강승훈(姜承勳)이 응모해 왔다. 부사(＊순전부사)가 좌수영에 돌아왔다. 종 경(京)이 보성서 말을 끌고 왔다.

초10일(경자) 궂은 비가 내렸다. 이날은 태종(太宗 ＊이조 3대임금)의 제삿날이다. 옛날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늦게 큰 비가 왔다. 박줄생(朴注叱生)이 보러 왔었다. 주인이 보리밥을 지어서 내왔다. 장님 임춘경(任春景)이 운수를 봐 가지고 왔다. 부찰사도 조문하는 서장을 보내왔다. 녹도 만호 송여종(宋汝琮)이 삼과 종이 2가지를 부의로 보냈다. 전라도 순찰사가 백미와 중품 쌀 각 1곡(＊20말)씩을 군관을 시켜 보내면서 콩과 소금도 구해 보낸다고 말했다.

11일(신축) 맑음. 김효성(金孝誠)이 낙안에서 왔다가 곧 돌아갔다. 광양의 전 현감 김성(金惺)이 체찰사(體察使)의 군관이 되어서 화살대 구하러 순천에 왔다가 보러와서 근래의 소문을 많이 전하는데, 그 소문이란 모두 흉인(兇人 ＊원균)의 일이었다. 부찰사가 온다는 통지가 왔다. 장위(張渭)가 편지를 보냈다. 정원명(鄭元溟)이 보리밥을 지어서 내었다. 장님 임춘경(任春景)이 와서 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부찰사가 고을에 이르렀는데, 정사립(鄭思立)과 양정언(梁廷彦)이 와서 부찰사가 보러 오겠다 한다고 전하나 나는 몸이 불편하다고 거절하였다.

12일(임인) 맑음. 새벽에 이원룡(李元龍)을 보내어 부찰사에게 문안했더니 부찰사도 또 김덕린(金德麟)을 보내어 문안했다. 늦게 이기남(李奇男), 기윤(奇崙)이 와서 보고 도양장(道陽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아침에 아들 열(悅)을 부찰사에게 보냈다. 신홍수(申弘壽)가 보러 와서 원공(＊균)의 점을 쳤는데, 첫 괘가 수뇌(水雷) 둔(屯)인데 천풍(天風) 구( )로 변했으니 본체를 이기는 것이라 크게 흉하다고 했다. 남해원(＊박대남)이 조문 편지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보냈다. 쌀2(섬), 참기름 2(되), 꿀5(되), 조1(섬), 미역2(동), 등 저녁에 향사당(鄕社堂)에 가서 부찰사와 함께 밤 깊도록 이야기하고 자정에야 숙소로 돌아왔다. 정사립과 양정언이 와서 닭이 운 뒤 돌아갔다.

13일(계묘) 맑음. 어젯밤 부찰사의 말이 상사(上使)가 보낸 편지에 영공(令公)의 일을 많이 탄식했더라고 한다. 부사(＊우치적)가 노자를 보내주어 참으로 미안스러웠다.

14일(갑진) 맑음. 아침에 부사가 보고 가서, 부찰사는 부유(富有 ＊승주군 주암면 신촌리)로 떠났다. 정사준, 사립, 양정언들이 와서 모시고 가겠노라고 하므로 일찍 아침을 먹고 떠나 송치(松峙 ＊승주군 서면)밑에 이르러 말을 쉬이고, 혼자 바위 위에 앉아 한 시간이 넘도록 곤하게 잤다. 운봉(雲峰)의 박용(朴龍)이 왔다. 저물어 찬수강(水江 ＊승주군 황정면)에 닿아 말에서 내려 걸어서 건너 가 구례 고을 손인필(孫仁弼)의 집에 이르니 현감이 보러 왔었다.

15일(을사)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주인 집이 아주 낮고 험하여 파리가 벌 떼같이 꾀니 사람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동헌의 모정(茅亭)으로 옮겼더니 남풍이 불어 들어 왔다. 원과 함께 종일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그대로 잤다.

16일(병오) 맑음. 원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남원 탐후인(探候人)이 돌아와 전하되, [체찰사(＊이원익)가 내일 곡성을 들려 이 고을(＊구례)로 들어와서 몇날 묵은 뒤에 진주로 갈것이라] 고 하였다. 원이 점심을 내는데 너무나 융숭했다. 대단히 미안스러웠다. 저녁에 정상명(鄭翔溟)이 왔었다.

17일(정미) 맑음. 남원 탐후인이 와서 전하되, 「원수(元帥)가 운봉(雲峰)길로 가지않고 양총병(楊摠兵 ＊원-元) 영접하는 일로 전주로 달려 갔다」고 한다. 내 걸음이 낭패라 민망하다.

18일(무신) 맑음. 동풍이 몹시 불었다. 저녁에 김종려(金宗麗) 영공(令公)이 남원서 바로 보러 왔다. 충청 수영의 영리(營吏) 이엽(李燁)이 한산서 왔기에 집에 보내는 편지를 부치기는 하였으나, 아침 술에 취해 날뛰니 가증스러웠다.

19일(기유) 맑음. 체찰사가 들어온다고 하므로 성안에 머무르고 있기가 미안하여 동문밖 장세호(張世豪)의 집으로 나갔다. 명협정(＊溟莢亭)에 앉았는데 원(＊이원춘-李元春)이 보러 왔었다. 저녁에 체찰사가 고을로 들어왔다. 오후 4시쯤에 소나기가 크게 쏟아지다가 오후 6시쯤에 개었다.

20일(경술) 맑음. 늦게 김첨지(＊경로-敬老)가 보러 와서 무주(茂朱) 장박지리(長朴只里)의 농토가 아주 좋다고 말하였다. 옥천 사는 권치중(權致中)은 김첨지의 서처남인데, 장박지리란 곳이 바로 옥천 양산창(梁山倉) 근처라고 하였다. 체찰사는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공생(貢生)을 보내고, 또 군관 이지각(李知覺)을 보내더니 조금 있다가 또 사람을 보내어 「진작 상제된 소식을 듣지 못했다가 이제야 듣고 놀라며 애도한다」하고 군관을 보내어 조상하며, 저녁에 만나볼 수 있겠는가를 물으므로 나는 「저녁에 당연히 가서 뵙겠다」고 대답하고 어둘녘에 가서뵈니 체찰사는 소복(素服)을 입고 기다렸다. 조용히 일을 이야기하는 중에 체찰사는 개탄하기를 마지 않았다. 밤 되도록 이야기하는 중에 「일찌기 임금의 분부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미안스런 말이 많았는 바,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며, 또 말하되 「음흉한 사람(＊원균)의 무고하는 행동이 심했건마는 임금이 굽어 살피지 못하니 나라일을 어찌 할꼬」하는 것이었다. 떠나올 때에 남종사(南從事)가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물었으나 나는 밤이 깊어서 나가서 인사하지 못하노라고 대답해 보냈다.

21일(신해) 맑음. 박천(博川) 유해(柳海)가 서울서 내려와서, 한산으로 가서 공을 세우겠노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은진현(＊충남 논산군 원진면 연서리)에 이르니 은진 원이 뱃길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더라」고 하였다. 유(柳)가 또 말하기를 「중한 죄수 이덕룡(李德龍)이란 자를 고소한 사람이 잡아 갇혀 세차례 형장을 맞고 다 죽어 간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과천(果川) 좌수(座首) 안홍제(安弘濟)들이 이 상궁에서 말과 20살짜리 계집 종을 바치고 놓여 나갔다고 하였다. 안(安)은 본시 죽을 죄도 아닌데, 여러번 맞아 거

의 죽게 되었다가 물건을 바치고서 석방이 되었다는 것이다. 안팎이 모두 바치는 물건의 다소로 죄의 경중을 결정 한다니 이러다가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야말로 돈만 있으면 죽은 사람의 넋도 찾아 온다는 것인가.

22일(임자) 맑음. 남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손인필(孫仁弼) 부자(父子)가 보러 왔었다. 유박천(柳博川)이 승평(昇平)으로 가서 그길로 한산으로 간다 하므로 전라경상 두 수사와 가리포 등에게 문안 편지를 써 보냈다. 늦게 체찰사의 종사관 김광엽(金光燁)이 진주에서 이고을로 들어오고 배백기(裵伯起 *홍립) 영공도 온다고 사사 편지가 왔다. 정희수 펼 수 있을 것이라 다행이다. 혼자 앉았노라니 비통함을 견디기 어렵다. 어둘녘에 배동지(*홍립)와 원이 보러 왔었다.

23일(계축) 아침에 정사룡(鄭士龍), 이사순(李士順)이 와서 보고 원공(*균)의 말을 많이 전했다. 늦게 배 동지는 한산으로 돌아갔다. 체찰사가 사람을 보내어 부르므로 가서 뵙고 조용히 의논했는데, 시국의 그릇된 것을 무척 분히 여기며 다만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했다. 내일 초계(草溪 *권도원수가 진친 곳)로 가겠노라고 하니, 체찰사가 이태백(李太伯)이 모은 쌀 두섬을 붙여주기에 성 밖 주인 장세휘(張世輝) 집으로 보냈다.

24일(갑인) 맑음. 종일 동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광양 고응명(高應明)의 아들 언선(彦善)이 보러 왔다가 한산도 사정을 많이 전했다. 체찰사가 군관 이지각(李知覺)을 보내어 안부를 묻고 「경상 우도 연해안 지도를 그리고 싶으나 그릴 수가 없으니 본대로 그려 보내주면 다행이겠다」고 하므로 거절 할 수 없어 대강 그려 보냈다. 저녁에 비가 굉장히 쏟아졌다.

25일(을묘) 비. 아침에 떠나려 하다가 비 때문에 정지하고, 혼자 촌집에 기대어 앉았으니 회포가 그지없다. 슬프고 그리운 생각을 어찌하랴.

26일(병진) 종일 큰 비가 내렸다. 비를 맞으면서 길을 떠나는데, 막 떠나려 하자 사량(蛇梁) 만호 변익성(邊翼星)이 무슨 문초 받을 일로 체찰사에게로 이종호(李宗浩)에게 잡혀 오므로 잠깐 서로 만나보고 그길로 석주관(石柱關)에 이르니 비가 퍼붓듯이 온다. 말을 쉬이고 엎어지며 자빠지며, 간신히 악양(岳陽) 이정란(李廷鸞)의 집에 이르렀으나 문을 닫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 집에는 뒤에 기와 집채도 있었다. 종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물색해 보았으나 합당한 곳이 없으므로 조금 뒤에 돌아왔다. 이정란의 집은 김덕령(金德齡)의 아우 덕린(德麟)이 빌어 든 집이다. 나는 열(悅)을 시켜 억지로 청해서 들어가 잤다. 행장이 다 젖었다.

27일(정사) 흐리다 개다 했다. 아침에 젖은 옷을 바람에 걸어 말렸다. 늦게 떠나 두치(豆恥) 최춘룡(崔春龍)의 집에 이르니, 사량 만호 이종호가 와 있었다. 변익성(邊翼星)은 곤장 20대를 맞고 꼼짝도 못한다고 했다. 유기룡(柳起龍)이 보러 왔었다.

28일(무오)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 했다. 늦게 떠나 하동현에 이르니 그 고을의 원(*신진-申秦)이 서로 만나보기를 반가히 여기며, 성 안 별사로 맞아들여 간곡한 정을 베풀었다. 그리고 원(*균)의 미친 짓을 많이 말했다. 날이 저물도록 이야기 하였다. 변익성도 왔다.

29일(기미) 흐림. 몸이 몹시 불편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머무르며 조리했다. 현감이 정다운 말을 많이 하였다. 황생원이라고 하는 70이나 되는 노인이 하동에 왔다고 하는데, 원래는 서울 사람으로 지금 떠돌아다닌다는데, 나는 만나지 아니하였다.

[50] 6월

초 1일(경신) 비, 비. 일찍 떠나 청수역(淸水驛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시냇가 정자에 이르러 말을 쉬고, 저물어 단성(丹城)땅과 진주 땅의 경계에 박호원(朴好元0의 농사 짓는 종의 집에 들어가니, 주인이 반가히 접대하기는 하나, 잘 방이 좋지 못해서 간신히 밤을 지냈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기름 종이 하나, 장지 2(축), 백미 1(섬), 참깨 5(말), 들깨 3(말), 꿀 5(되), 소금 5(말), 미지(未持) 5를 하동원이 보내 주었다.

초 2일(신유)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일찍 떠나 단계(*청군 창등면 단계리) 시냇가에서 아침을 먹고, 늦게 삼가현(三嘉見)에 이르니, 현감(*신효업-申孝業)은 벌써 산성으로 가고 없어 주인 없는 공관에서 잤다. 고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밥은 지어 먹으라고 하는 것을, 종들에게 먹지 말라고 타일렀다. 삼가현 5리 밖 홰나무 정자 아래 앉았노라니 근처에 사는 노순일(盧淳鎰) 형제가 보러 왔었다.

초 3일(임술) 비, 비. 아침에 떠나려다가 비가 오기 때문에 쭈그리고 앉아 어떻게 할까 하

고 걱정하는 판에 도원수의 군관 유홍(柳泓)이 흥양으로부터 와서 길을 이야기하며 떠날 수 없다고 하므로 그대로 묵었다. 아침에 종들이 고을 사람들의 밥을 얻어 먹었다고 하기에 종을 매 때리고 밥 쌀을 도로 갚아 주었다.

초 4일(계해) 흐리다 맑음. 일찍 떠나려는데, 현감(＊신효업)이 문안장과 함께 노자까지 보내왔다. 낮에 합천 땅에 이르러 고을에서 10리쯤 떨어진 괴목정이 있는 곳에서 아침밥을 먹고 너무 덥기 때문에 한동안 말을 쉬고, 5리쯤 되는 앞에 이르니 갈림길이 있는데, 한길은 바로 고을로 들어가는 길이요. 한길은 초계(草溪)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강을 건너지 않고 가다가 10리 남짓해서 원수(元帥)의 진이 바라 보였다. 문보(文珤)가 우거하는 집에 들어가 잤다. 고갯길을 타고 오는데, 기괴한 바위가 천 길이나 되고, 굽이 도는 강물이 깊기도 하며 길은 험하고 위태로와 만일 이 험한곳을 눌러 지킨다면, 만 명이라도 지나가기 어렵겠다. 여기가 모여곡(毛汝谷)이다.

초 5일(갑자) 맑음. 서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초계 원이 달려 왔기에 불러들여 이야기하였다. 식후에 중군(中軍) 이덕필(李德弼)도 달려와서 함께 지난 이야기를 했다 조금 있다가 심준(沈俊)도 보러 왔으므로 함께 점심을 먹었다. 거처할 방을 도배했다. 저녁에 이승서(李承緖)가 보러 와서 수직하던 병졸과 복병들이 도망한 일을 말했다. 이날 아침 구례 사람과 하동현감(＊신진)이 보내 준 종과 말들을 모두 돌려 보냈다.

초 6일(을축) 맑음. 자는 방을 새로 도배하고 군관 휴식소 두간을 만들었다. 늦게 모여곡(毛汝谷) 주인집의 이웃에 사는 윤감(尹鑑), 문익신(文益新)이 보러 왔었다. 종 경(京)을 이대백(李大伯)에게 보냈더니 담당 아전이 나가고 없어서 그냥 왔다고 한다. 이대백도 나를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 한다. 어두워 집에 들어 갔는데, 그집과 부는 다른 집으로 옮아 갔다.

초 7일(병인) 맑고 몹시 더웠다. 원수(元帥)의 군관 박응사(朴應泗)와 유홍(柳泓)들이 보러 왔고, 원수의 종사관 황여일(黃汝一)이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므로 곧 답례해 보냈다. 안방에 들어가 잤다.

초 8일(정묘) 맑음. 아침에 정상명(鄭翔溟)을 보내어 황 종사관에게 안부를 물었다. 늦게 이덕필(李德弼)과 심준(沈俊)이 보러 왔고, 원이 그 아우와 함께 보러 왔고 원수를 마중가는 사람들도 10여명이나 보러 왔었다. 점심 후에 원수가 진에 이르므로 나도 가 보았다. 종사관이 원수 앞에 있었고, 원수가 함께 한참 이야기하였다. 원수가 박성(朴惺)의 사직하는 글의 등본을 보이는데, 박성은 원수의 처사가 소탈한 데가 많다고 많이 진술하여, 원수가 못마땅해 하면서 도 체찰사에게 글을 올렸다고 한다. 또 복병에 관한 사항 등의 서류를 보고 저물게 돌아와, 몸이 불편하므로 저녁밥을 먹지 아니했다.

초 9일(무진) 흐리며 개지 않았다. 늦게 정사명을 원수에게로 보내어 문안하고, 다음으로 종사관(＊황일영)에게도 문안했다. 처음으로 노마료(＊奴馬料)를 받았다. 숫돌을 캐 왔는데 품질이 연일석(延日石)보다 낫다고 한다. 윤감(尹鑑), 문익신(文益新), 문보(文)들이 보러 왔었다. 이날은 여필(汝弼)의 생일인데, 혼자 진중에 앉아 있으니 회포가 어떠하랴.

초10일(기사) 맑음. 아침에 가라말, 워라말, 갑자말, 유마(馬)들의 편자가 떨어진 것을 갈아 박았다. 원수의 종사관이 삼척(三陟) 사람 홍연해(洪璉海)를 보내서 문안하고, 늦게 보러 오겠다고 전했다. 연해는 홍견(洪堅)의 삼촌 조카다. 어려서 죽마를 타고 같이 놀던 서철(徐徹)이 합천(狹川)땅 동면(東面), 율진(栗津)에 사는데,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보러 왔었다. 아이 때 이름은 서가을박지(徐加之朴只)인데, 음식을 대접해서 보냈다. 저녁에 원수 종사관 황여일(黃汝一)이 보러 와서 조용히 이야기 하다가 임진년에 왜적을 무찌른 일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는 일이 없고, 또 산성에 험고한 요새를 쌓지 않은 한탄과 당면한 토벌 방비의 대책이 허술한 것 등을 말하는데, 밤이 깊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갈 것을 잊고 이야기 하였다. 또 그는 내일 원수가 산성을 친히 살펴보러 간다고 말하였다.

11일(경오) 맑음. 중복날이라 쇠라도 녹일 것 같고, 땅은 찌는 듯 했다. 늦게 명나라 차관(差官) 경략(經略) 국문에 있는 이문경(李文卿)이 보러 왔으므로 부채를 선물로 주어 보냈다. 어제 저녁 종사관이 이야기할 때 변흥백(卞興伯)의 종 춘(春)이 집편지를 가지고 와서 어머님 영연(靈筵)이 평안하신 줄은 알았으나, 쓰라린 회포야 어찌 다 하랴. 그런데 흥백(興伯)이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청도(淸道)로 돌아갔다 하니 참으로 섭섭하다. 이날 아침 편지를 써서 흥백에게 보냈다. 아들 열이 곽란을 앓아 밤새도록 신음하므로 말할 수 없이 답답했다. 닭이 울어서야 조금 덜해 잠이 들었다. 이날 아침, 한산도 여러 곳에 가는 편지 14장을 썼다. 경(庚)의 모친이 편지를 보냈는데, 지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도둑이 또 일어났다고 했다. 작은 워라 말이 먹지를 않으니 더위를 먹은 것이다.

12일(신미) 맑음. 이른 아침에 종 경(京)과 종 인(仁)을 한산(閑山) 진으로 보냈다. 전라 우수사(＊이억기), 충청 수사(＊최호-崔湖), 경상수가(＊배설-裵楔), 가리포(＊이응표-李應彪), 녹도(＊송여종), 여도(＊김인영), 사도(＊황세득-黃世得), 배동지(＊흥립), 김 조방장(＊완-浣), 거제(＊안위-安衛), 영등(＊조계종-趙繼宗), 남해(＊박대남), 하동(＊신진), 순천(＊우치적) 들에게 편지했다. 늦게 승장(僧將) 처영(處英)이 보러 와서 부채와 짚신을 바치므로 다른 물건으로 갚아 보냈다. 그는 적의 정세도 이야기하고, 원공(＊균)의 일도 이야기했다. 오후에 들으니 중군장(中軍將 ＊이덕필)이 군사를 거느리고 적에게로 갔다고 우병사(＊김응서)의 긴급 보고에 「부산의 적은 창원 등지로 떠나려 하고, 서생포의 적은 경주로 진을 옮긴다」고 하였으므로 복병군을 보내서 길을 막고 군대의 위세를 올린다고 했다. 병사의 우후(虞候) 김자헌(金自獻)이 일이 있어서 원수를 뵈오려 왔었다. 나도 보았다. 달빛을 이고 돌아왔다.

13일(임신) 맑더니 늦게 보슬비가 뿌리다가 그쳤다. 늦게 병사의 우후 김자헌이 보러 와서 한동안 이야기하다가 점심을 대접해 보냈다. 이날 낮에 왕골을 쩌서 말렸다. 어두워 청주(淸州) 이희남(李喜男)의 종이 들어와서 「주인이 우병사 부대에 입대 하였기 때문에 지금 원수(元帥)의 진 근처에 까지 왔는데, 날이 저물어서 묵고 있다」고 말하였다.

14일(계유) 흐리되 비는 안왔다. 이른 아침에 이희남이 들어와서 제 누이의 편지를 전해 주는데, 아산의 영연(靈筵)과 위 아래가 모두 무사하다고 하나, 아픈 마음을 어찌 다 말하랴. 아침 식후에 이희남이 편지를 가지고 우병사(＊김응서)에게로 갔다.

15일(갑술) 맑고 흐리기 반반. 이날은 보름인데 몸이 군중에 있어 영위를 베풀고 곡을 못하니 그리운 정희가 어떠하랴. 초계 원이 떡을 갖추어 보냈다. 원수 종사관이 황여일이 군관을 보내어 말을 전하되, 「원수가 오늘 산성으로 가려 한다」고 했다. 나도 뒤 따라 큰 냇가에 이르렀다가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까 봐, 냇가에 앉아서 정상명(鄭翔溟)을 보내어 병이라 아뢰고 그대로 돌아왔다.

16일(을해) 맑음. 종일 혼자 앉았었는데, 들여다보는 사람 하나 없었다. 열(悅)과 이원룡(李元龍)을 불러들여 책을 매어서 변씨 족보를 쓰게 했다. 저녁에 희남(喜男)이 한글 편지를 보냈는데, 「병사(兵使)가 보내 주지 않는다」고 했다. 변광조(卞光祖)가 보러 왔었다. 열과 정상병이 큰 내에 가서 싸울말(戰馬)을 씻겨 가지고 왔다.

17일(병자) 흐리되 비는 안 왔다. 서늘한 기운이 들기 시작해서 밤이 쓸쓸하다. 새벽에 일어나 앉으니 아프고 그리움을 어찌 다 말하랴. 아침 식후에 원수에게로 갔더니 원(元)공의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많이 말하고, 또 비변사(備邊司)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이는데, 「원균의 장계에 수군과 육군이 함께 나가서 안골(安骨 ＊창원군 웅천면 안골리)의 적을 무찌른 연후에 수군이 보산 등지에 진군하겠으니 안골의 적을 먼저 칠 수 없겠습니까」하였고, 원수(元帥)의 장계에는 「통제사 원균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안골의 적을 먼저 쳐야 한다고만 말하고, 수군 여러 장수들이 많이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뿐 더러, 원균은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아니 하므로 절대로 여러 장수들과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 일을 엎질러 버릴 것은 뻔합니다.」라고 하였다. 원수에게 아뢰어 이희남(李喜男)과 변존서(卞存緖), 윤선각(尹先覺)들에게 모두 공문으로 독촉해 오도록 하라고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황 종사관이 묵고 있는 집에 들러 한참동안 이야기하고, 내 숙소로 와서 희남(喜男)의 종을 의령 산성(宜寧山城)으로 보냈다. 청도(淸道)가 파발로 공문을 보내어 초계 원에게 보여 주었더니, 실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18일(정축) 흐리되 비는 안 왔다. 아침이 황 종사관이 종을 보내어 문안했다. 늦게 윤감(尹鑑)이 떡을 해 가지고 왔다. 명나라 사람 엽위(葉威)가 초계로부터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명나라 사람 주언룡(朱彦龍)이 일찌기 일본에 사로잡혀 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적병 10만명이 벌써 사자마(沙自麻)나 대마도로 왔을 것이요. 행장(行長)은 의령을 거쳐 곧장 전라도를 칠 것이요. 또 청정(靑正)은 경주 대구 등지로 진을 옮기고 그대로 안동으로 가려 한다」고 했다. 저물어 원수가 사천(泗川) 갈 일을 통지해 왔기에 곧 전 사복(司僕 ＊상명-翔溟)을 보내어 물었더니, 원수가 수군 일 때문에 사천으로 간다 했다.

19일(무인) 새벽 닭이 세 회를 울때 문을 나서 원수 진중에 이르려 할 즈음 날이 훤히 밝았다. 진에 이르니 원수와 황 종사관이 함께 나와 앉았다. 내가 들어가 뵈니, 원수가 내게 원균의 일을 말하되, 「통제의 일을 말할 수가 없소. 조정에 청하여 안골, 가덕(加德)을 모조리 무찌른 뒤에 수군이 나가 토벌해야 한다 하니, 그게 무슨 심사겠소. 밀고 나가지 않으려는 뜻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천(泗川)으로 가서 세 수사(水使)를 독촉하여 진격하도록 할 예

정이오. 통제사는 내가 지휘할 것도 없고」하였다. 또 위에서 내려운 분부를 보니, 안골(安骨)의 적은 경솔히 들어가 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원수가 나간 후 황 종사관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초계(草溪) 원이 왔다. 작별하고 나오려 할 때 황 종사관이 초계에게 진찰순(陳贊順)을 심부름 시키지 말라고 당부하니 원수부의 병방(兵房) 군관과 원이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 사로 잡혔다가 도망해 온 사람이 나를 따라 왔다. 이날 대지가 온통 찌는듯 더웠다. 저녁에 작은 워라말이 풀을 조금 먹었다. 낮에 변덕기(卞德基 *군사), 덕장(德章 *우영리-右營吏), 변경완(卞慶浣 *늙어서 그만둔 아전), 변경남(卞敬男 *나이 18세)들이 보러 왔고, 진사(進士) 이일장(李日長 *진사 信吉의 아들)도 보러 왔다. 밤에 소나기가 크게 퍼부어 처마의 낙수가 물을 쏟는 것 같았다.

20일(기묘) 종일 비가 내렸는데, 밤에도 큰 비가 왔다. 늦은 아침에 서철(徐徹 *공의 어릴적 친구)이 보러 왔었다. 윤감(尹鑑), 문익신(文益新), 문보(文)들이 보러 왔고, 변유(卞瑜)도 왔다. 오후에 종과 말의 급료를 받아 왔다. 병든 말이 차차 나아 갔다.

21일(경진)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새벽 꿈에 덕(德), 율온(栗溫), 대(臺)들이 보였는데, 나를 보고 퍽 좋아들 하였다. 아침에 영덕 현령 권진경(權晋慶)이 원수께 뵈러 왔다가 원수가 사천으로 가고 없으므로 나를 보러 와서 좌도(*경상좌도)의 사정을 많이 전했다. 좌병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곧 답장을 써서 주었다. 황종사관이 문안하러 보냈다. 저녁에 변주부(注簿 *존서), 윤선각(尹先覺)이 와서 이야기 하였다.

22일(신사)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아침에 초계 원이 연포(軟抱)국을 끓여 가지고 와서 권하긴 하나 오만한 빛이 많았다. 그의 처사가 체모 없음을 말하여 무엇하랴. 늦게 이희남(李喜男)이 들어와서 우병사의 편지를 전하였다. 낮에 정순신(鄭舜信), 정사겸(鄭思謙), 윤감(尹鑑), 문익신(文益新), 문보(文보)들이 보러 오고, 이선손(李先孫)도 보러 왔었다.

23일(임오)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아침에 큰 활 살을 다시 다듬었다. 늦게 우병사가 편지를 보내고 겸하여 크고 작은 환도를 보냈다. 그런데 가지고 오는 사람이 물에 떨어뜨려 칼집과 장식을 결딴내 놨으니 아깝다. 아침에 나굉(羅宏)의 아들 재흥(再興)이 그 아비의 편지를 가지고 보러 왔었다. 또 군색한 노자까지 보내어 매우 미안했다. 오후에 이방(李芳)이 보러 왔는데, 방은 아산 이몽서(李夢瑞)의 둘째 아들이다.

24일(계미) 이날은 입추다. 새벽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여 온 골짜기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침에 수사(水使) 권언경(權彦卿)의 종 세공(世功)과 함께 감손(甘孫)이 와서 무우밭에 대한 일을 아뢰었다. 또 생원 안극가(安克可)가 보러 와서 세상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무우밭을 갈고 심는 일의 감관(監官)으로 이원룡(李元龍), 이희남, 정사명, 문임수(文林守)들을 정해 보냈다. 오후에 합천 군수(*오운-吳雲)가 조언형(曹彦亨)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찌는듯 더웠다.

25일(갑신) 맑음. 다시 명령하여 무우씨를 뿌리게 했다. 아침 식전에 황 종사관(*여일)이 보러 와서 수전(水戰)에 대한 일을 많이 말하였다. 또 원수가 오늘 내일 진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군사 문제를 토론하다가 늦게야 돌아갔다. 저녁에 종경이 한산서 돌아왔는데, 보성 군수 안홍국(安弘國)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적 한 놈도 잡지 못하고 먼저 두 장수를 잃어 버리니 통탄함을 어찌 말하랴. 거제(巨濟)가 사람을 시켜 미역을 실어 보냈다.

26일(을유) 맑음. 새벽에 순천의 종 윤복(允福)이 현신 하기에 곧 곤장 50대를 때렸다. 거제서 온 사람이 돌아갔다. 늦게 중군장(中軍將) 이덕필(李德弼)과 변홍달(卞弘達), 심준(沈俊)들이 보러 왔었다. 황 종사관이 개벼루(犬碩) 강가의 정자에 나왔다가 돌아갔다. 어응린(魚應麟), 박몽삼(朴夢參)들이 보러 왔었다. 아산 있는 종 평세(平世)가 들어와서 어머님 영연(靈筵)이 평안하시고 각 집 상하가 모두 무사하다고 한다. 다만 석달이나 가물어 농사는 틀려 가망도 없다는 것이다. 장삿날은 7월 27일로 했다가 다시 8월 초 4일로 택일했다고 한다. 그리고 생각 슬픈 정희를 어찌 다 말하랴. 저녁에 우병사(*김응서)가 체찰사에게 보고하되, 「아산 이방(李昉)과 청주 이희남(李喜男)이 복병하기 싫어서 원수 진 옆에 피해 있다」하여 체찰사가 원수에게 공문을 보내 왔으므로 원수는 크게 노하여 또 공문을 만들어 보냈는데, 병사(兵使) 김응서(金應瑞)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이날 작은 워라말이 죽어 내다 버렸다.

27일(병술) 맑음. 아침에 어응린(魚應麟), 박몽삼(朴夢參)들이 돌아갔다. 이희남과 이방(李昉)들이 체찰사의 행차가 이르는 곳으로 갔다. 늦게 황여일(黃汝一)이 보러 와서 한참동안 같이 이야기 하였다. 오후 3시에 소나기가 크게 쏟아져 잠깐 사이에 물이 불었다.

28일(정해) 맑음. 늦게 황해도 백천(白川) 사는 별장(別將) 조신옥(趙信玉), 홍대방(洪大邦) 들이 보러 왔다. 또 초계(草溪) 아전이 보낸 고목에는 원수(元帥)가 내일 남원으로 간다고 하였다. 이날 새벽에 꿈자리가 매우 뒤숭숭하였다. 종 경(京)이 물건을 사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29일(무자) 맑음. 변주부(卞主夫 *존서-存緖)가 마흘방(馬訖坊)으로 갔다. 종 경이 돌아오고 이희남(李喜男), 이방(李昉)들도 돌아왔다. 이중군(李中軍 *덕필-德弼)과 심춘(沈俊)이 와서 전하는 말이 심유격(沈遊擊 *유경-愉敬)이 체포되어 갔는데 양총병(楊摠兵)이 삼가(三嘉)에 이르러 결박해 보냈다고 한다. 문임수(文林守)가 의령(宜寧)으로부터 와서 전하기를 체찰사가 벌써 초계역(草溪驛)에 당도했다고 한다. 새로 과거에 급제한 양 간(梁諫)이 황천상(黃天祥)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변주부가 마흘방에서 돌아왔다.

30일(기축) 맑음. 새벽에 정사명으로 하여금 체찰사께 문안드리게 하였다. 이날 몹시 더워서 대지가 찌는 듯 하였다. 저녁때 흥양(平海) 신여량(申汝樑), 신제운들이 와서 해안 지방 일대에는 비가 알맞게 왔다고 전했다.